

생명의 삶  
월요일  
20.03.02

## 근심이 '충만한 기쁨'으로 반전될 그날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16~24

### 3. 본문 해설 & 적용하기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예고 (16:16-22)

성도에게는 현재 고난이 아닌 미래 영광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명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사랑으로 인해 그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로 인해 슬픔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음성에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나요?

####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기쁨 (16:23~24)

예수님은 '지금'과 '그날'을 구분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를 가리키십니다. '지금'은 근심의 때지만(22절) '그날'은 기쁨의 때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과 달리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주어지고 기도 응답 받을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특권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예수님 임재를 맛보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날'이 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나요?

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을 얼마나 누리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 카터 콜론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일상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제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소서.

#### 5. 주 기도

생명의 삶  
화요일  
20.03.03

## 부족함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주님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488장 이몸의 소망 무언가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25~33

###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 제자들의 피상적 이해 (16:25~33)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습니다(16:16). 이에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이르겠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28절). 이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깨달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해 놓고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는 자신의 불완전한 이해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나 이해했을까요?
- 정확히 다 알지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 부족함을 받아 주시는 예수님 사랑 (16:31~33)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들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부드럽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 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지는 인정하시지만, 그들이 여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32절)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쁜 제자들이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때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다시 내게 와서 평안을 누리라."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수해도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다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은 세상 끝 날까지 기억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이후 어떻게 행동하나요?
- 평안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무명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잠시 무너질 때도 평안으로 저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넘어지기 쉬운 저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에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시니 담대하게 하소서.

#### 5. 주 기도

생명의 삶  
수요일  
20.03.04

## 순종으로 지는 십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1~5

###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 십자가의 영광 (17:1~3)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수치고 부활은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뿐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고별설교(13:31~17:26)를 마무리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돌리게 해달라고 기도 하십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도 이를 하나님 뜻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순종과 영광 (17:4~5)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영광의 삶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임을 보이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위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삶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통해 누리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신뢰 관계에서 행하신 창조 사역에 나타납니다. 제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그 영광의 삶을 따라갑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시기 전에 이루신 사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최상의 영광이다.

- 마이크 웰즈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으로 채우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앎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 5. 주 기도

생명의 삶  
목요일  
20.03.05

## 제자를 건실하게 세우는 사람의 간구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6~19

###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17:6~8)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성품을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거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비록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로 끝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자 가롯 유다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나요?
-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 (17:9~19)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그분의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첫째,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오셨는데, 자신이 떠난 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둘째,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결 요건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들도 사명 완수를 위해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셋째,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얻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스승이 제자를 세우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제자 된 우리 삶에서도 그 사랑의 기도가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 예수님은 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 예수님의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요?

기도는 하나님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가 이끌려 가게 하는 것이다.

- 스탠리 존슨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공동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 5. 주 기도

생명의 삶  
금요일  
20.03.06

##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됨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20~26

###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 제자들의 하나 됨 (17:20~23)

성도들의 하나님 됨은 세상에 주님을 보여 주는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첫 제자들과 그들의 전도로 제자 된 이들이 하나 되기를 간구 하십니다. 하나 됨은 사이 좋게 지내거나 성만찬을 같이하거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 됨의 진정한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주하며 깊은 신뢰로 알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인격이 점유되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 모델에 따라 제자들도 서로를 받아들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됨을 통해 참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에 주님 사랑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하나 됨의 모델은 무엇인가요?
-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됨이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예수님의 사역 요약(17:24-26)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십니다. '나 있는 곳'(24절)이 장소라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될 것이고, 조건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자 요한의 성향으로 볼 때 후자가 유력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제자들과 서로 내주하는 사랑의 완성에 있었듯, 오늘 우리 사역도 그러해야 합니다.

- 공생애 기간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나의 사역 목적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까요?

주님을 깊이 알고 온전히 신뢰해 그분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 존 파이퍼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하나 되길 원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기심과 자손심을 앞세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제자 됨을 세상에 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 **5. 주 기도**

생명의 삶  
토요일  
20.03.07

## 자발적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457장 겿세마네 동산의

### 2.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8:1~14

###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 체포되시는 예수님 (18:1~11)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셔서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 그분은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서 스스로 정체를 밝히시며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8~9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에게 자신은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10~11절).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들 이시지만 대속 제물이 되는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감당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나요?
-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편을 선택할 일은 무엇인가요?

####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신 예수님 (18:12-14)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한 어린양이십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 먼저 심문한 사람은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예수님 신문의 주체인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가야바지만, 이미 대제사장을 지냈고 실세였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것은 당시 힘의 역학 관계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 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11:47~52). 그러므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심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으로는 로마 총독과 유대 권력자들 간의 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는 속죄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대속의 길입니다.

- 예수님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심문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나의 작은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 사람이다.

- 폴 스티븐스

####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아시면서도 초연히 하나님의 뜻을 좇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 5. 주 기도